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래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학원대학	파견기간	2014.8.31~2015.8.1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역에서 학교까지 도보 5분 정도로 가까운 편이다.</p> <p>학교식당의 경우 교환학생에 한해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하고, 맛도 괜찮다. 강의실이나 도서관, 체육관 등 시설은 꽤나 깨끗한 편이다.</p> <p>다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인다.</p>
2014-2학기 수업	<p>* JSL Level 3 (교환학생 필수 일본어수업)</p> <p>전공수업이 아닌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전수업이다. 매일 숙제가 있고, 시험, 발표 등 과제가 다양하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고 싶다면 이 반을 추천한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다.</p> <p>*Looking at Japanese History Through Film (교양)</p> <p>일본영화를 통해서 일본역사를 배우는 수업이다. 수업이 전혀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교수님이 설명도 알기 쉽게 해주셔서 재미있었다. 영화시청을 통해서 일본 역사와 문화 등 많은 것을 배웠다. 시험도 없고, 마지막에 레포트만 써서 내면 된다. 꼭 수강하라고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다.</p> <p>* Hotel Food Service Operations</p> <p>이 과목의 교수님은 정말 엄하신 분이다. 수업 중 잡담은 절대 안되고, 모자를 쓰고 수업을 들어서도 안 된다.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교수님이다. 매일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미니테스트라고 해서 그 날 들은 수업 내용, 질문 등을 써서 내는 과제가 있다. (이걸로 출석 확인)</p> <p>교수님이 말이 빠르고 정확하지 않아서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교재는</p>

	<p>없고 프린트를 매주 나눠주신다. 시험은 오픈북으로 어렵지 않다.</p> <p>*Travel Industry Case Studies</p> <p>수업은 좀 지루한 편이지만 그럭저럭 들을 만하다. 이 수업도 교수님이 매주 프린트를 나눠주신다. 프린트 이외에 가끔 비디오도 시청한다. 과제는 레포트 1회 제출에, 시험은 문제를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 알려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다 열심히 공부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p> <p>*Service Industry Studies</p> <p>이 수업은 꼭 들으라고 추천하고 싶다. 교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매주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칠판에 항상 필기를 해주시는데 글씨체가 정말 깔끔해서 알아보기 쉽다. 가끔씩 어려운 한자가 나올 경우, 우리가 모를 까봐 따로 크게 써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신다. 수업을 듣는 학생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아서 수업 분위기도 조용하다. 학생이 적어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다과회를 하기도 했다. 발표를 하면 무조건 A이상은 받을 수 있다.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시험을 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p>
<p>2015-1학기 수업</p>	<p>*JSL Level 4</p> <p>다른 반에 비해 수업 레벨은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선생님이 아빠 같은 느낌으로 푸근한 인상이다. 일본어도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주시고, 여러 분야에 지식도 많으시다. 질문을 하면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신다.</p> <p>*마케팅 전략론</p> <p>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고, 수업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편인데 교수님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으면 듣지 않는 편이 좋고, 좋은 학점을 받고 싶으면 수강하는 것이 좋다. 교수님이 엄격 하지 않고, 수업 내용이 정말 간단하다. 레포트 1회 제출에 시험 문제도 다 알려주신다. 교수님이 핵심키워드 위주로 수업을 진행 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p> <p>*표현A(일본어)</p> <p>우리나라 '글쓰기기초'라는 과목과 비슷한 느낌의 수업이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려운 한자나 어휘가 정말 많이 나온다. 사전 없이는 수업을 듣기 힘들다. 정말 일본어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이 수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총 2회로 미니테스트를 한 번 보고, 마지막에 기말시험을 본다. 매주 프린트를 뽑아가야 한다. 시험은</p>

	<p>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업을 자주 빠지면 시험 때 고생한다. 교수님이 말이 좀 빠르신 편이라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p> <p>*레스토랑 비즈니스 매니지먼트</p> <p>매일 수업이 끝나기 10분 전에 미니테스트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쓰거나, 어떤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답도 같이 써서 제출해야 한다.</p> <p>수업 내용은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재미있지는 않다.</p> <p>교수님이 시간을 정말 정확 하게 지키신다. 조금 엄격하신 분이다.</p> <p>레포트 1회 제출에 기말시험이 있지만 문제를 알려주시니까 공부만 제대로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p>*JLPT2급 준비 또는 1급 준비</p> <p>학점인정은 안 되는 수업으로, 일본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 푸는 요령이나 시험에 나올만한 중요 단어 등을 알려준다.</p> <p>선생님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고, 설명도 알아듣기 쉽게 잘 해주셔서 좋았다.</p>
프로그램 운영	<p>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다. 기모노를 입고 무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모노체험, 직접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만들기 체험, 학교 축제 등이 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사카학원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의 교류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재미도 없었고,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날씨는 한국과 비슷한 편이지만, 번덕이 정말 심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우산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여름에 정말 덥다. 한국보다 습도도 높고 더 더운 느낌이다. 겨울에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내가 살았던 맨션은 방바닥이 정말 차가워서 맨발로 디딜 수 없을 정도였고, 집 자체가 추운 편이어서 수면양말과 전기장판은 필수품이었다.</p>

안전	<p>약 1년 정도 있으면서 아주 미세한 진동을 딱 한 번 느꼈다.</p> <p>지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듯 하다. 방사능이 걱정돼서 가능하면, 야채나 쌀을 살 때 원산지는 꼭 확인하고 사는 편이다.</p> <p>(일본인은 크게 신경 안 쓰는 듯 하지만...)</p> <p>돈키호테 같은 큰 상점이나 변화가에 은근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 여자들의 경우 조심하는 편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짧은 치마 입은 날은 조심! 몰래 촬영하는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티아라’라고 하는 맨션에 살았다가 후에, 2개월 정도는 ‘티파니1’라는 맨션에 살았다. 역에서 티아라 맨션까지 가깝긴 하지만 가는 길이 조금 어두워서 밤 늦게는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 좋다. 방 안에 냉장고, 책상, 침대, 접시 등 옵션은 다양했지만, 집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입주한지 3일만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요리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바퀴벌레가 엄지 손가락만한데다가 쉽게 안 죽으니까 만약 나온다면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말해서 연기 피우는 약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큰 효과는 없지만) 우리 집 현관문을 열면 앞 집 현관문이랑 맞닿을 정도로 꽤나 밀착돼 있어서 방음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바닥이 나무 바닥이라 걸을 때 소리가 나지만, 바닥 색이 어두워서 먼지나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이는 장점(?)이 있다. 어떤 방에는 세탁기가 있는데 어떤 방에는 없어서 1층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방마다 옵션이 다 달라서 진짜 복불복이다. 겨울에 정말 추우니까 전기장판이나 수면양말은 필수품이다. 난방도 되지만 전기세 폭탄 맞으니 되도록이면 전기장판이나 수면양말로 버티는 것이 좋다..</p> <p>6,7월 두 달은 티파니라는 맨션에 살게 됐는데 티아라 맨션보다 몇 배는 좋다. 방 크기도 조금 더 넓고, 깨끗하다. 정말 깨끗하다. 베란다도 넓고 각 방에 세탁기도 다 있다. 건물에 CCTV도 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4층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버리는 날에 정확히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다시 문 앞에 가져다 놓는다. 이 맨션도 방음이 좋은 편은 아닌데 티아라 보다는 좋다.</p> <p>귀국하기 전에 방 청소 검사를 하는데 특히 이불은 깨끗이 쓰는 것이 좋다. 가구도 물론 그렇지만. 이불에 뭔가 묻어있으면 이불 값도 내야 한다.</p> <p>어떤 집이든 똑 같은 집세를 내는데 옵션은 다 다르다. 만약 티아라 맨션이 된다면 티파니 맨션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똑같은 집세를 내면서 티아라 맨션에서 사는 건 돈이 아깝다.</p> <p>후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신이 집을 구할 수 있다면 학교기숙사 말고 꼭 자신이 직접 알아보는 쪽을 추천한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 기타 (O)</p> <p>학교식당의 메뉴 구성이나 맛은 괜찮다. 주로 튀김위주의 메뉴이고, 그 외 오므라이스, 주먹밥, 카레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교환학생은 할인도 해준다.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리가 없을 때가 많다.</p> <p>학교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다양해서 식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카와역 근처에 카레집이 있는데 맛도 있고, 런치에는 가격도 저렴하다. 추천!</p>
교통	<p>아이카와역에서 학교가 있는 쇼자쿠역까지는 한큐전철로 역 하나이기 때문에 5분도 안 걸린다. 변화가 우메다까지도 학교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다. 아이카와역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봤는데 천천히 걸으면 50분 정도 소요되고, 빨리 걸을 경우 3-40분이면 도착한다.</p> <p>나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다녔었는데 걸어 다닐 만 했다. 걸어가는 길도 은근 예뻐서 좋았다. 자전거로 통학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학교까지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300,000원	
Fees		
보험료	학교에서 권하는 보험을 구매.	건강보험료 매달 19,000원정도 화재보험
숙소	매달 42,000엔 (약39만원)	
식비	매달 30,000엔 (약28만원)	
교통비	정기권(1개월) 약1500엔	정기권(1개월 또는 3개월) 3개월이 이득.
책값	약 8000엔 (약7만4천원)	
기타1		
기타2		
합계	한 달에 90-100만원 정도	

5. 출국 전 준비사항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본어 공부는 하고 일본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기본도 못하면 내가 고생이다. 집이나 아르바이트 등 계약서 문제도 있고, 특히 집과 관련해서 너무 모르면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공부는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숙소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만약 숙소를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곳이 아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면 자신이 알아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알아보니깐 여기보다 싸고 좋은 집이 정말 많다. 세제나 그릇, 옷걸이 등 기본적인 용품은 여기서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세세하게 챙길 필요는 없을 듯 하다.
파견 전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장학금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지금도 아쉬워하는 점 중 하나가 장학금 제도다. jasso라는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특별한 지원자격도 없고, 메일이 왔을 때 받고 싶다고 빨리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다.
겨울에 쓸 전기장판은 한국, 일본 두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걸 미리 한국에서 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한국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인터넷)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자신에게 맞는 약을 챙기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약1년 동안 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은 잊을 수 없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일본에 막 왔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고생도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려니 외롭기도 하고 했지만 확실히 처음보다는 일본어 실력도 늘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도 사귀고, 상상만 했었던 곳으로 직접 여행도 다니는 등 너무나 많은 추억이 생겨 기쁘다. 오키나와, 홋카이도, 돗토리 등 내가 정말 가고 싶어했던, 꼭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곳을 다 다녀와서 기쁘다. (돗토리는 꼭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혼자 여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교토의 '오하라'라는 곳을 정말 추천하고 싶다. 일본에서도 일본어능력시험을 볼 수 있으니 볼 생각이 있다면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얻은 것도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확실히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것과 일본에 와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역시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그 나라에 직접 가보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돌아가서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자격증을 따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